

朝鮮朝 仁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 世子時節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ading History of King Injong in the Joseon Dynasty

金 重 權 (Kim, Joong-gwon)**

◁ 목 차 ▷

- | | |
|---------------|--------------|
| 1. 緒 言 | 3.2 世子の 讀書日程 |
| 2. 元子時節의 讀書段階 | 4. 結 言 |
| 3. 世子時節의 讀書日程 | <참고문헌> |
| 3.1 書筵 및 書筵官 | |

< 초 목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2대 왕이었던 인종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원자시절부터 세자시절 25년 동안 서연에서 실시한 독서일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따라서 인종이 실시한 서연제도와, 그 제도에 따라 읽었던 독서자료, 독서행태 및 독서환경에 장애가 된 원인 등을 밝혔다. 그 결과 인종이 세자시절에 읽었던 책은 『小學』, 『大學』, 『論語』, 『十九史略』, 『孟子』, 『通鑑節要』, 『中庸』, 『大學衍義』, 『周易』, 『綱目』, 『宋鑑』 등 총 11종으로 강독 및 독서토론에 참여한 서연관은 80명이었으며, 독서저해요인은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 내부적인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要語: 綱目, 論語, 大學, 大學衍義, 尙書, 書筵, 小學, 宋鑑, 仁宗, 中庸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im@gwangju.ac.kr)

접수일: 2010년 8월 31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ding history of King Injong in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 records of the Sillok (實錄). The schedules of his reading and learning at the Seoyeon(書筵) for twenty five years before he became a king was investigated in detail.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What he read during those days were 11 titles which included Sohag(小學), Daehag(大學), Noneo(論語),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Daehagyeonye (大學衍義), Juyeog(周易), Sibgusalyag(十九史略), Gangmog(綱目), and Songgam (宋鑑). Eighty people participated in his reading and discussion at the Seoyeon(書筵). His physical problem and internal incidents hindered his reading.

Key words: Sohag(小學), Daehag(大學), Noneo(論語),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Daehagyeonye(大學衍義), Juyeog(周易), Sibgusalyag(十九史略), Gangmog(綱目), Songgam(宋鑑), Seoyeon(書筵)

1. 緒 言

중종은 1506년 19살의 나이로 연산군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조선조 11대 왕이다. 그는 원래 신수근의 딸 단경왕후와 결혼했으나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뒤 반정에 반대한 신수근의 딸이라는 이유로 폐위되었다. 그 후 윤여필의 딸인 장경왕후를 얻어 중종 10년(1515) 2월 25일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億이라 하였으며, 6세에 세자로 책봉하면서 다시 皓라 개명하였다. 후에 왕위에 올랐으나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의 왕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로 그가 바로 조선 12대 왕 인종이다.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는 아들을 생산하고 산후의 증세가 좋지 않아 원자와 함께 盧共弼의 집에서 거처하다 경복궁으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원자는 노공필의 집에서 어머니를 잃고 다시 金應箕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으나 신하들의 만류로 궁으로 돌아와 문정왕후(훗날 명종의 어머니)의 슬하에 성장하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집 저집 옮겨 다니거나 갖은 모략과 중상, 알 수 없는 동궁의 화재 등을 겪으며 살아왔으며, 건강도 좋지 못하여 자주 서연을 열지 못해 독서할 기회를 상실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영리하다는 소문에 조기교육을 시작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3세에 문자를 익히고 8세에 성균관에 입학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아버지 중종은 39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사건도 많았으나 성리학에 대한 일념도 대단하여 문신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가독서를 시키면서 독서당을 건축하거나, 번역사업, 인쇄출판, 서점 등을 개설하는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중종 본인 역시 경연에서 17종의 책을 완독하면서 집권 말까지 총 272명의 경연관을 상대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¹⁾ 그 환경 속에서 보고 자란 인종은 아버지 및 문신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자라났다. 그는 세지시절을 25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문신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아개발과 정치력을 키워온 인물이다. 그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독서했는지, 또한 그를 완벽한 인간이 되기까지 옆에서 지켜봐준 스승

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41집, (2008. 12).

들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주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종이 세자시절에 만났던 스승들과 그가 읽었던 책과 경연에서 의 독서활동을 밝혀 그의 독서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元子時節의 讀書段階

인종(1515-1545)은 원자시절 이름이 億이었다. 그는 宮에서 살지 못하고 주로 私家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당시 사가에서는 道家에 관심이 많은 시기였으므로 사가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유교를 숭상하는 문신들의 불안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원자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중종은 전에 없었던 원자 보양관제도를 두고 당상관급 이상으로 원자보양관을 임명하여 원자의 문자 익힘과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종이 태어나서 세자에 책봉되기까지의 독서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종 10년 2월 25일 원자가 태어나자마자 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노공필, 김응기 등의 사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 상황을 바라본 문신들은 원자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궁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건의들이 빗발쳤다. 私家에 있으면, 말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데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한 건의를 받은 중종은 11년 11월에 홍문관에 명하여 원자를 교육시킬 내용을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였다.²⁾ 중종의 부탁을 받은 홍문관 부제학 한효원은 원자의 교육에 대해, 李耜는 『大學衍義』의 내용 중에서 문장을 선별하여 자신의 의견과 함께 글을 써서 올렸다.³⁾

李耜가 『大學衍義』의 내용을 발췌하여 원자의 독서단계인 도입적 단계로 문자인지를 위해 발췌한 것인 지는 확실치 않지만 2세부터 문자 교육이 실시된 것은 확실하다. 중종 12년 1월에는 원자가 마마를 잃게 되고 마마가 완치된 후

2)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11月 22(己亥) 卷26. 冊15. 239.

3)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1月 19(乙未) 卷27. 冊15. 255.

12년 4월 13일에는 「千字文」을 다 읽고 「類合」을 절반이나 읽었다고 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그때 원자는 河城尉의 집에서 거쳐하고 있으면서 부왕인 중종을 만나러 왔다가 중종 앞에서 글을 읽었는데, 중종은 원자의 독서하는 내용을 듣고 그의 영특함을 기뻐하며, 주의하라는 잠계를 써 주었다. 그 내용은

“일찍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고, 학문 힘쓰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스승을 존대하고 道를 즐기며, 善을 좋아하고 仁을 힘쓰라. 聲色을 가까이 하지 말고 貨利를 불리려 말라. 禮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 아닌 것은 듣지 말며, 예 아닌 말은 하지 말고, 예 아닌 행동은 하지 말라. 소인의 무리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난잡한 놀이를 좋아하지 말라. 뜻 세우기를 고상하고 원대하게 하되 金石처럼 굳게 하라.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되 날마다 문안하고 수시로 음식을 보살피라. 邪僻한 짓 버리기를 힘쓰고, 이단을 숭상하지 말라. 私欲을 부리지 말고 착하고 공정한 마음을 보존하라. 婦寺들의 말을 듣지 말고 始終을 조심하라.”⁴⁾

사실 당시 원자의 나이 3세였는데 「千字文」을 완독하고 「類合」을 절반이나 읽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그 모습을 본 중종이 자식을 위해 잠계를 써 준 내용에 ‘성색’이니, ‘화리’니 하는 말 등은 원자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사실 그 후에도 원자는 계속해서 여염집에 거쳐하고 내관과 부녀자들이 오가며 말동무가 되곤 했었는데 문자 익힘이 활발했는지는 의문이다.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 문신들은 세자의 교육을 걱정하였다. 문신들은 새로운 중전이 정해졌으니 궁으로 들어와 중전의 보살핌 속에 자랄 것을 건의하였다.⁵⁾ 그 후(12년 7월 28일) 원자의 스승 4명을 선발하여 지도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그 결과 私家에서는 가르치기 힘들고 원자의 나이가 어리니 당하관보다는 당상관 중에 선발하라는 중종의 부탁으로 정광필, 신용개는 김응기, 김전, 남곤, 안당 4명을 추천하였다. 즉, 이들이 최초의 元子 輔養官이었다. 당시 원자가 사가에 있으면서 불경을 외고 도류의 진언을 들으면서 자랐다하여 문신들이 사가에서 빨리 대궐로 불러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자는 건의가 계속되었

4)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4月 13(戊午) 卷27. 册15. 270.

5)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7月 28(辛丑) 卷28. 册15. 297.

다. 그러나 중중은 원자가 사가에서 병들 때나 이사할 때는 도류를 부르는 풍습이 있어 원자도 아무 의미도 없이 도류를 가까이 한 것으로 일축하였다. 그 해 10월 좌의정 겸 보양관인 金應箕가 원자에게 계산하는 방법과 방위의 이름을 가르쳤으며,⁶⁾ 『小學』에서 선별한 내용을 읽도록 하였다.

12년 12월에는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산음현에서 『동몽수지』을 간행하였는데, 어린이들의 독서자료로 적당한 책이라 하여 이익방이 원자에게 선정하여 읽도록 권유하였다.⁷⁾ 보양관 중 김응기는 병이 들어 원자를 가르칠 수 없자 안당, 김전, 남곤 등이 번갈아가며 원자를 가르쳤다. 원자는 다시 사가로 나가 살면서 책임기를 계속하였다. 해가 바뀌어도 원자가 대궐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이자, 남곤이 원자의 교육이 염려되어 대궐로 들어오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李籽가 아뢰기를, “元자가 오랫동안 대궐 밖에 있어 근래에 몸이 편찮은데, 內官과 醫員에게만 약시중을 들게 하시고 왜 대신에게는 알리지 않습니까? 또 원자를 자주 대궐에 들어오게 해서 親愛의 정을 베푸셔야 합니다. 어릴 때에 아버이 사랑할 줄을 알게 하면 자라서는 더욱 長遠한 뜻을 가질 줄 알게 될 것입니다.”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신이 12월부터 원자를 여러 번 뵈었습니다. 김응기가 抄略한 『小學』 大文을 크게 써서 가르치는데, 하루 읽는 양이 거의 2~3대문에 이르고 쓴 글씨도 字體를 이루니 비록 6~7세 된 아이라 하더라도 이를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거하는 곳이 누추한 듯합니다. 지금 원자는 德器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때에 輔導해야 하니 일찌감치 궁중에 들게 해서 미리 보양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⁸⁾

그 후 열흘 있다가 13년 1월 16일에 河城尉의 집에서 대궐로 들어왔다.⁹⁾ 3일 후 중중은 원자에게 『小學』초락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6)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10月 11(癸丑) 卷30. 冊15. 336.

7)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윤12月 14(乙酉) 卷31. 冊15. 378.

8)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月 6(丙午) 卷31. 冊15. 386.

9)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月 16(丙辰) 卷31. 冊15. 390.

“元子が 靑宮에 들어와 東宮에 거처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그의 글 읽는 상태를 보아, 보양하는 대신은 『小學』 중에서 요긴한 말을 뽑아내서 가르치라. 그가 일찍이 읽었던 것은 환하게 알지 못함이 없고 다른 책에서 뽑아낸 문자도 또한 잘 解讀한다. 그러므로 그가 일찍이 읽었던 문자를 써서 보이면 잘 접속해서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지금이 막 가르칠 때요 공부할 때이다. 가르침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해서도 안 된다. 늦추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내일 아침에 보양하는 대신을 불러서 이런 뜻을 말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¹⁰⁾

동년 1월 20일에 좌찬성 金諶, 이조 판서 南袞, 호조 판서 안당이 『小學』 초략을 마친 뒤 문리가 터지면 소학전서를 읽도록 하겠으며, 3일 만에 한번씩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¹¹⁾ 그 후 2월 26일에는 보양관들이 문신들의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어떤 이는 병이 있다하거나 유고가 있다하여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므로 나이가 젊고 영리한 사람을 뽑아 대신들이 빈 시간에 지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극피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중종은 나이가 어리니 시강원을 설치할 수는 없고 병이 있다한들 오래도록 앓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대신들에게 맡기는 편이 좋다는 답변이었다. 그 후 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사가로 돌아갔다. 이에 문신들은 동년 2월 27일부터 원자가 대궐로 들어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하며, 당하관들도 가르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건의가 잇따랐다. 중종은 원자를 가르치는데 당상관급 이상이 대신들로 스승을 구성하고 연소자는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¹²⁾ 사실 당시 보양대신 3명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중종은 대신들 중에서 보충하도록 한 것으로 보면 결단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또 다시 13년 8월 7일에 보양대신들이 윤번으로 원자를 지도하느니 젊고 유능

10)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月 19(己未) 卷31. 冊15. 392. “元子入闕, 處東宮有日矣. 觀其讀書, 輔養大臣, 抄出<小學> 中要語以教之也. 其所曾讀者, 無不通曉, 而文字之擧出於他書者, 亦能解讀. 且書其所曾讀之字以示之, 則能接續讀之. 觀其所爲, 今正可教可學之時也. 教之不可緩也, 然亦不可太急, 不緩不急以教之則可也. 明朝可命召輔養大臣, 語以此意, 使議其教之方.”

11)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月 20(庚申) 卷31. 冊15. 392.

12)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3月 10(己酉) 卷31. 冊15. 406.

한 문신들을 선발하여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건의가 있었다. 원자는 13년 8월 17일 하성위 집에서 궁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젊은 인재로 원자보양관을 삼아야한다는 건의에 따라 14년(1519) 8월 10일 3정승과 김전, 남곤, 이계맹, 그리고 이장곤, 조광조 등을 추가로 선발한 다음 그 날 중종은 남곤, 조광조 등을 불러 원자가 『소학』 읽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다 한다.¹³⁾

이상으로 원자에 대한 독서기본단계를 살펴보았다. 중종은 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잃게 되자 대신들 집에 맡겨 보살피도록 하였다. 따라서 궁궐에 거처하는 기간 보다는 사가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았다. 중종은 그러한 원자를 불쌍히 여겨 보양하려는 마음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른다. 원자의 교육을 위해 곧바로 보양관을 선발하였다. 당시 보양관으로는 김응기, 남곤, 김전, 안당 4명이었으며, 후에 이계맹, 이장곤, 조광조가 선발되었다. 원자가 문자를 익히기 위해서 이용된 책은 『千字文』과 『類合』, 『小學』 등이었다. 이후부터 원자가 태어나면 중종조에 실시된 보양관의 제도에 따라 보양청이 설치되었으며, 인조 때부터 원자가 4세 정도면 문자를 익히고 독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강화청 설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世子時節의 讀書日程

3.1 書筵 및 書筵官

세자에 책봉되면 시강원을 개설하여 서연을 개설하는 것이 규칙화되었다. 원자가 6세가 되자 문신들 간에 세자책봉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름도 세자로 책봉하기 전에億이라고 불렀던 것을 중종 15년 3월 5일에 중종이 김희수에게 부탁하여 皓로 개명하고, 4월 22일에 중종은 이호를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이호가 세자로 책봉되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시강원이 개설되었다. 시강원이

13)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8月 10(辛未) 卷36. 冊15. 562.

란 從三品衙門으로 왕세자에게 경서와 史籍을 강의하고, 道義를 바르게 啓導하는 일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며, 부빈객 이상은 타관사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經國大典』에 나타난 시장원의 인원배정은 사 1명(영의정), 부 1명(의정), 이사 1명(찬성), 좌우빈객 각 1명, 좌우부빈객 각 1명, 보덕 1명, 필선 1명, 문학 1명, 사서 1명, 설서 1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¹⁴⁾ 중종 39년부터는 보덕 이하 1명씩 증원하여 좌우보덕, 좌우필선, 좌우문학을 두었다. 세자의 독서교육은 주로 보덕, 필선 등이 담당하였으며, 사부는 권강과 회강 때면 만날 수 있었다(表 1 참조).

<表 1> 侍講院 品階 및 人員

時期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從三品	正四品	正五品	正六品	正七品
成宗	사 1명 (영의정 겸임) 부 1명 (의정겸임)	이사 1명(찬성이 겸임)	좌우 빈객 각1명	좌우부 빈객 각1명	보덕 1명	필선 1명	문학 1명	사서 1명	설서 1명
中宗	사 1명 (영의정 겸임) 부 1명 (의정겸임)	이사 1명(찬성이 겸임)	좌우빈 객 각 1명	좌우부 빈객 각1명	좌우보 덕 각 1명	좌우 필선 각 1명	좌우문 학 각 1명	사서 1명	설서 1명

서연 시 대간과 사관의 참여문제도 논의 되었다. 그 결과 대간은 양사에서 1명씩 운번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중종은 사관도 참여시키도록 했으나 예전에 참여한 바가 없다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사관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시장원 관원을 시켜 세자가 한 말과 사·부·빈객이 한 말을 다 써서 보고하도록 하였다.¹⁵⁾

서연의 횡수는 처음에 매일 3회씩 열어 독서하도록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관계로 하루에 1회로 결정하였다. 그 것도 매일 독서하게 한다면 혈기가 아직 왕성하

14) 經國大典 吏典 正三品衙門 世子侍講院 27

15)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4月 27(甲申) 卷39. 冊15. 654.

지 못하므로 건강을 해칠까 염려된다는 채침의 반대도 있었으나 중중은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후 사부와 의논하여 3일에 한 번씩 강독하도록 했으며, 會講은 매월 15일에 회강을 열기로 했으며, 회강 때 세자의 자리는 혼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부와 서로 平床에 앉도록 하였다.¹⁶⁾ 사부가 참석한 勸講은 5일, 15일, 25일로 하였다. 중중 19년부터는 매일 서연을 열도록 했다.

<表 2> 書筵官 名單

姓名	職責(侍講院)	勤務命令日
許遲	輔德	15年(1520) 4月 27日
兪汝霖	弼善	15年 4月 27日
洪淑	刑曹判書 兼 世子左賓客	15年 5月 4日
南袞	世子傳	15年 5月 26日, 22年 3月 12日 卒
柳溥	輔德	15年 閏8月 7日
金謹思	兼世子左副賓客	15年 11月 16日
李繼孟	世子貳師(賓客)	15年 11月 29日
金益壽	金益壽	16年(1521) 6月
崔重演	輔德	17年(1522) 4月
金詮	世子師	17年 4月
李行	賓客	17年 4月
蘇世良	輔德	17年 7月 19日
李龜齡	文學	17年 7月 20日
許渭	文學, 弼善(17년 11월)	17年 7月 22日, 11月 9日
任由謙	兼世子右賓客	17年 8月 12日
姜顯	世子侍講院司書	17年 9月 13日, 11月 2日
金安鼎	輔德	17年 11月 2日
韓承貞	文學	17年 11月 9日
李龜齡	文學, 輔德(20년)	18年(1523) 2月 18日, 20年 8月 14日
李英符	文學	18年 6月 卒
南孝義	輔德	19年(1524) 4月 25日
趙琛	輔德	20年(1525) 1月 22日, 3月 3日
朴紹	文學, 弼善(22년)	20年 1月 22日, 22年 6月 23日
鄭萬鍾	司書	20年 2月 21日

16)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5月 14(辛丑) 卷39. 冊15. 659.

朝鮮朝 仁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姓名	職責(侍講院)	勤務命令日
尹漑	弼善	20年 11月 16日, 23年 1月 17日
沈義欽	弼善	21年(1526) 1月 4日
李賢輔	輔德	21年 11月 17日
尹思翼	弼善	21年
許沆	說書	21年
黃士祐	輔德	22年(1527) 3月 26日
元繼蔡	輔德	23年(1528) 1月 17日
鄭彥浩	文學	23年 1月 17日
金公藝	輔德	23年 2月 21日
尙震	弼善	23年 5月 7日
李夔	弼善, 輔德	23年 11月 29日
沈彥光	輔德	24年(1529) 1月 17日
鄭世虎	弼善	24年 1月 19日
洪石堅	弼善	24年 5月 15日 교체됨
金希說	兼世子侍講院弼善	24年 5月 15日
柳世麟	文學	24年 5月 15日
金致雲	兼司書	24年 5月 15日
嚴昕	兼說書	24年 5月 15日
金萬鈞	司書	26年(1531) 3月 17日
金安老	左賓客	27年(1532) 1月 10日
林百齡	文學	27年 1月 21日
尹豐亨	文學	27年 1月 25日
鄭希弘	司書	27年 2月 15日
趙仁奎	弼善	28年(1533) 5月
宋麟壽	兼弼善	28年(1533) 5月
蔡世英	文學	28年(1533) 5月
蔡無擇	兼文學	28年(1533) 5月
徐固	司書	28年(1533) 5月
任虎臣	說書	28年(1533) 5月
洪暹	兼說書	28年(1533) 5月
閔齊仁	弼善	28年 7月 4日
任弼亨	司書	28年 10月
黃琦	輔德	30年(1535) 7月 18日
金遂性	兼弼善	30年 9月
鄭惟善	文學	30年 9月

姓名	職責(侍講院)	勤務命令日
元繼儉	說書	30年 9月
金光軫	弼善	30年 9月, 11月 29日
金遂性	輔德	31年(1536) 1月
洪春卿	輔德	33年(1538) 2月 6日
安玆	輔德	33年 10月 9日
尹殷輔	師	34年(1536) 6月
洪彥弼	傅	34年 6月
成世昌	賓客	34年 6月
李龜齡	賓客	34年 6月
梁淵	賓客	34年 6月
金希說	賓客	34年 6月
金安國	兼世子貳師, 兼賓客	37年(1542) 1月 9日, 39年 1月 4日 卒
李彥迪	兼世子左副賓客	37年 1月 9日
申光漢	兼世子右副賓客	37年 1月 9日
李畬	文學	39年(1544) 1月 15日 卒
鄭源	世子侍講院左輔德	39年 4月 3日
丁應斗	右輔德	39年 4月 3日
李滉	左弼善	39年 4月 3日
鄭希登	右弼善	39年 4月 3日
金澍	左文學	39年 4月 3日
朴公亮	右文學	39年 4月 3日

세자를 교육시켜 완전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강원 문신만 해도 <表 2>에서 보듯이 80명 이상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세자가 왕이 되기까지 이들과 어떤 책으로 독서활동을 했는지 그 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2 世子の 讀書日程

본 장에서는 세자가 왕이 되기까지 어떤 책으로 어떻게 독서를 했는지 일정별로 독서활동을 밝혀보고자 한다.

세자가 서연에서 처음으로 책을 선정 받아 읽기 시작한 책은 『小學』이었다.

『小學』은 3세 때부터 김응기가 초략한 내용으로 읽기 시작하였으나 시강원이 개설된 뒤 본격적으로 읽어 중종 15년(1520) 9월 9일에 완독하였다. 완독한 후 시강원 관원들과 책거리를 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다. 다음 읽을 책으로는 『大學』이 선정되었다.

중종 16년(1521) 4월 29일 7세에 중국의 황제로부터 세자의 칭명을 받게 되었으며, 세자로 책봉된 후에는 인간관계, 국가의 행사 참여 및 신병문제로 독서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를 염려한 사헌부 대사헌 洪淑은 5조목을 나열하여 중종에게 세자 교육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즉, 사부, 시강하는 관리, 내시, 여시를 선발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小人들은 눈에 띄지 말게 하고 아침하는 말은 듣지 않게 하시며, 비록 王子君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지만 마땅히 禮로써 대하고 방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¹⁷⁾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하면서 어린 세자에게 너무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책을 읽어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시키게 하려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독서교육이다. 이호는 어린 나이에 강압적인 교육과 인간관계에 억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집 저집 거처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마음도 약하고 신체도 약하여 남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가 하면 잦은 병치레로 독서의 장애요소가 많았다.

중종 16년(1521) 11월 초부터 세자는 감기증세가 있자 창덕궁으로 피접시키고 寧山君과 景明君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1월 17일에는 가슴 아픈 증세로 齊安大君 집으로 피접시키고, 이듬해 1월에는 다시 창경궁으로 옮겼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세자는 중종 16년 한 해에는 독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朝鮮王朝實錄』, 中宗 16年 7月 6日(乙卯) 卷42. 冊16. 50. “殿下選置師傅, 講讀劘切, 其涵養熏染之功, 足以長仁、益德矣。然今輔養之方, 與古有異。世子一日之中, 在講讀之地, 少, 處宮闈之邃, 多, 氣質恐未易變化; 德器恐未易成就。此, 臣等所深懼也。古人云: ‘少成若天性; 貫慣如自然。’ 必使師傅, 勉率以正, 而侍講僚屬, 亦當慎選。至於宦寺, 必任謹慎; 女侍, 必取端方, 雖在深宮幽奧之中, 如對師傅。桑雍之類, 不接於目; 讒佞之言, 不入於耳, 而雖諸君、至親, 當以禮相接, 無使狎慢。”

17년(1522) 1월 7일 한 달이 넘도록 호전되지 않은 까닭에 문신들은 세자의 교육을 염려하였다. 이에 홍문관 부제학 金安老는 사부, 빈객은 없고 노과와 내시 들밖에 없으니 사부·빈객에게 맡겨 번갈아 宿直하며 수시로 나아가 살피도록 하고 또한 평상시에도 한가로이 같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빈객이하의 관원 2명씩 윤번으로 숙직하도록 하였다.¹⁸⁾ 세자가 2개월 후 1월 22일 완쾌되어 궁으로 돌아오게 되자 서연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논의 결과 서연관은 1-2일씩 걸러서 進講하고 사부는 열흘에 한 번씩 세자의 건강과 독서의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였다.¹⁹⁾ 얼마 후 또 다시 세자는 감기증세로 서연을 정지하였다(17년 2월 12일). 감기문제로 자주 피접하고 서연을 중지했으나 17년 4월 8일에는 「대학」을 모두 완독하고 다음에 읽어야 할 책으로 「論語」을 선정하였다. 동년 4월 19일에는 시강원 보덕 崔重演이 회강을 정지한지 오래되고, 또 사부와 빈객들이 호중 때문에 정지하고 서연도 일본사신접대라 해서 정지하여 세자를 교육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중종에게 건의하였다. 이는 세자가 독서 부족으로 덕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중종은 그 문제점을 수락하여 앞으로 호중 때나 잔치 때는 연고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고, 사부나 빈객들은 다른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史冊에다 기록하도록 하였다.²⁰⁾

그러자 다음날 20일에는 世子師 金詮, 世子傅 남곤과 賓客 李繼孟, 洪淑, 李荇, 金謹思 등은 서연 때문에 호중을 폐할 수 없으며, 세자 역시 나이가 어리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날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세자가 영특하여 「小學」을 읽을 나이인데 현재 「論語」을 읽고 있으므로 교육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으로 반박성 건의를 하였다. 이에 중종은 “사람이 나서 8세가 되면 모두 小學에 입학하는 것이 비록 성인들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나 단지 거기에만 구애되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 사람의 氣質을 보아 교육시켜야 한다. 내가 일찍이 직접 보건대, 세자의 글 解讀이 자못 수월했기 때문에 날마다 進講하게 하려 했었다. 그러나 사부들이 마땅히 학문이 어떠한지를 보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상황을 봐가며

18)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1月 7日(乙卯) 卷43. 冊16. 90.

19)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1月 24日(壬申) 卷43. 冊16. 94.

20)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4月 19日(乙未) 卷44. 冊16. 114.

세자에게 독서하도록 한 것이다.²¹⁾ 그리고 그 다음날(21일) 시강관 김섬과 대화 내용을 보면,

“중종: 세자 輔養은 어릴 때부터 孝悌의 도리를 들려준 다음에야 마침내 도음이 있게 되는 법이니, 師傅와 賓客 등이 마땅히 조용하게 訓誨해야 하는데, 들어보면, 단지 進講만 할 뿐 훈회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니 별로 도움이 없는 것이고, 書筵에서 문답한 내용을 지난번 글로 써서 보고하도록 했던 것은 말한 것을 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도 보고하지 않으므로 보양하는데 도움이 없을까 두렵다. 輔養官은 祖宗朝에는 없었는데 설치한 것이다. 조종조에는 3일씩 걸러 진강했는데 지금은 하루씩 걸러 진강하니, 학문을 권면하는 뜻이 지극한 것이다. 빈객들이 연고가 있어서 會講을 못하게 된 원인을 와서 아뢰지는 않고 갑자기 笏子에 기입하였음은 불가하다.

시강관 김섬: 세자께서 기질이 비상하므로, 비록 날마다 서연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학문을 함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일 날마다 서연을 열게 되면 혹시 기운을 손상하게 될까 싶은데, 전번에 편치 못하신 것도 기운을 손상한 것인가 싶어 깊이 염려되었습니다.”²²⁾

위의 내용은 세자에게 스승들이 진강만 하고 훈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 세자와 문답한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라 했는데 보내지 않은 점, 조종조에서는 3일에 1회, 현재는 2일 1회 진강을 하고, 또한 예전에 없던 보양관까지 설치하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처럼 중종은 자식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동궁이 독서할 수 있는 책도 간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종 17년 5월 27일에는 홍문관에서 『東宮啓蒙』을 편찬하여 울리자 이형에게 서문을 짓도록 하고 30부를 인쇄하여 10부는 궁으로 20부는 홍문관, 시강원, 동서의 문무루에 나누어 소장하도록 하여 세자를 교육시키는 의미가 잘 나타나도록 하게 하였다.²³⁾

21)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4月 20日(丙申) 卷44. 冊16. 114.

22)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4月 21日(丁酉) 卷44. 冊16. 114. “輔養世子, 自少聞孝悌之道, 然後終當有益. 師傅、賓客等當從容訓誨, 而聞, 只講之而已, 不爲講究訓誨, 甚爲無益. 書筵論難之辭, 已命書啓, 欲觀其辭, 今不書啓, 恐無輔養之益也. 輔養官, 祖宗朝所無, 而設之. 祖宗朝間三日進講, 而今則間日進講, 其勸學之意, 至矣. 以賓客有故, 不得會講之意, 不來啓之, 而遽入於笏子, 不可也. 侍講官金鈺曰: 世子氣質非常, 雖不日日御書筵, 學間非不足也. 若逐日書筵, 則恐或傷氣. 前者未寧, 恐至傷氣, 深以爲慮耳.”

23)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5月 27日(壬申) 卷44. 冊16. 122.

6월이 되자 날씨가 덥고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서연을 정지하고, 정지했더라도 賓客이 隔日로 찾아뵙고, 서늘한 날에 진강하도록 하였다. 중종 17년 7, 8월에는 세자의 관례와 입학이 논의 되어 관례는 10월 19일, 입학은 10월 25일로 정하였다.

중종 18년에는 세자의 나이가 8세 된 해로 독서의 저해요인을 보면 자전의 병환 문제로 서연정지, 시강원협소문제, 질병발생, 세자빈 간택, 추위관계 등이었다.

중종 18년 3월 9일 영사 남곤과의 대화에서 중종은 회강 때 했던 말들을 써서 보고하라 했는데 올리지 않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남곤은 세자께서 자전의 병환으로 오래도록 서연을 정지했으나 독서하는 것을 보니 문리가 통하고 글자의 뜻을 자주 질문하는 것으로 봐서 10세전에 이와 같은 일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 하여 중종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얼마 후 시강원에서는 회강 때 건물 공간이 너무 좁아 서책도 둘 수가 없다는 문제를 거론했으며, 중종이 독서토론 때 논의된 말을 기록해서 보고하라는 말에 시강원에서는 반발하기도 하였다. 중종 18년 3월 15일자를 보면,

“시강원에서 ‘시강원 堂宇가 좁아 書冊을 둘 곳이 없으며, 또 會講 때면 대청이 매우 좁으니 5~6간을 더 늘려 지어 서책을 둘 수 있게 하소서. 또 書筵과 회강 때 論難하는 데 관계된 말이면 괜찮지만 서계하기 위해 억지로 번잡한 말을 쓴다면 이는 비단 세자를 보양하는 실체가 아닐 뿐더러 지리멸렬한 폐단이 될까 두렵습니다.’하니, 진교하기를, ‘成宗 때에도 시강원에서 회강하였는데, 師傅와 賓客이 모두 모였으나 곧 과하곤 하였으니, 만일 좁다면 장막을 벌여 치면 될 것이다. 또 서책은 어찌 꼭 그곳에 다 옮겨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상고해야 할 일이 있으면 本司에 가서 보면 될 것이니 더 늘려 지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회강이나 서연에서 토론한 내용을 서계하는 일은 날마다 할 필요가 없다.’하였다.”²⁴⁾

24) 『朝鮮王朝實錄』, 中宗 18年 3月 15日(丙辰) 卷47. 冊16. 202. 侍講院啓曰: “院堂宇狹窄, 書冊無可置處. 且會講時則大廳甚窄, 請加造五六間, 以藏書冊. 且書筵及會講時, 論難之辭, 例命書啓. 其所論難, 若關於保養之辭, 則宜矣. 若拘書啓, 強爲繁辭, 則非徒保養之不以實, 恐有支離之弊.” 傳曰: “成宗朝亦於此院, 爲會講, 師傅、賓客, 雖皆聚會, 不久而罷. 若狹窄則亦可以張幔也. 且其書冊, 豈必盡輸于此? 若有考事, 亦可往考于本司, 不必更加營繕. 且書啓論難之事, 不必逐日爲之.”

중종이 세자와 시강원들과의 독서토론내용을 알고 싶어 했는데 보고하기 위해 번잡한 말을 꾸며 쓰면 효과가 없다는 형식으로 답하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세자는 중종 18년 4월 들어 다시 질병이 발생하여 서연이 중지되고, 동년 10월 3일에는 세자빈 간택이 논의되었으며, 11월 3일에는 날씨가 추워 서연이 중지되었다.

중종 19년에는 세자빈 결정, 혼례, 세자빈 아버지 상 등으로 독서하는 일정이 많지 않았다.

동년 2월 12일 朴壙의 딸로 세자빈이 결정되었으며, 19년 2월 30일에는 그동안 중지했던 서연을 재개하도록 했으며, 5, 15, 25일에 실시하는 권강과 회강을 검토하고 세자가 장성하여 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날마다 서연을 여는 것이 어떤지 검토하도록 했다.²⁵⁾ 19년 3월 6일 근정전에서 책비례를 거행하고 7일에는 박씨와 혼례를 올렸다. 6월 27일 세자빈 아버지 박용이 죽어 서연을 정지하였다. 10월 12일에는 매월 15일 사부와 대간이 참여하여 資善堂에서 실시하는 회강을 하지말고 대신 서연을 하도록 하였다.²⁶⁾

중종 20년에는 세자의 학문에 대한 문제점, 논어를 완독한 해이며, 새로운 독서자료로 『十九史略』과 『孟子』을 선정받은 해이다.

일정별로 보면 동년 2월 6일에는 황효헌과 중종이 세자의 학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논의 내용은 세자의 나이가 어리지만 거의 문리가 통했으나 시강원관리와 요속들이 세자에게 대하는 모습이 임금 대하듯이 하므로 세자가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모르는 곳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종은 황효헌이 말한 내용을 듣고 세자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이니 질문을 유도하여 토론하고, 시강원 관원들이나 요속들과도 친숙하게 지내도록 시강원에 전교하였다.²⁷⁾ 동년 6월 8일에는 날씨가 더워 조강만 하다가 가을 시원해질 때까지 서연을 정지하였다.²⁸⁾ 가을이 되어 세자의 독서는 계속되었으나

25) 『朝鮮王朝實錄』, 中宗 19年 2月 30日(乙丑) 卷50. 冊16. 291.

26) 『朝鮮王朝實錄』, 中宗 19年 10月 12日(癸卯) 卷52. 冊16. 346.

27)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4月 24日(癸丑) 卷54. 冊16. 412.

28)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6月 8日(丙申) 卷54. 冊16. 425.

세자가 글을 읽고 해석은 할 줄 아는데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중종은 동년 8월 8일에 평소애 학문에 부지런하지 않았음을 타하였으며, 서연에서 토론했던 모든 사항을 다시 보고하라 했는데 2월 이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다하여 빈객 과 서연관들을 문책하기도 하였다. 실은 중종이 보고를 문제시 한 것보다는 세자가 열심히 독서해도 의미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서연관들은 세자가 내용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강론에 힘쓰지 않고 의심나는 점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라 변명했다. 또한 삼공은 문리가 통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 해법을 유가경전의 독서에서 찾기보다는 역사서에서 찾으려 했다. 즉, 「大學」이나 「論語」과 「孟子」은 문리가 통하기 더디므로 역사책인 「十九史略」을 주장에 입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중종은 사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였다.²⁹⁾

그 후 중종은 세자의 나이가 어리므로 자주 서연관을 교체하면 친근감이 없고, 독서토론에 지장을 초래한다하여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³⁰⁾ 동년 8월 16일에는 심사손의 건의를 받아들여 朝講, 晝講 외에도 夜對도 하도록 하였으나 사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夜對는 세자 겨우 10살이라 조강, 주장에 진강한 내용만 독서해도 충분하고,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15세부터 실시하자고 합의하였다.³¹⁾

이와 같이 세자의 사부들에 의하여 야대가 15세 까지 연기된 관계로 야대는 실시하지 못하고 아침과 낮 시간에만 독서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중종 20년(1525) 11월 7일 「論語」을 완독하게 되었다. 다음 독서자료로는 세자의 사부가 중종의 동의를 얻어 「孟子」으 선정하였다.³²⁾ 「孟子」을 선정 받은 세자는 계속해서 독서를 시작해야 했으나 11월 11일부터 감기에 걸려 독서를 하지 못하였다. 건강을 되찾은 세자는 저녁에도 독서를 하고 싶어 석강을 건의하였다. 건의 내용에 대해 중종 21년(1526) 1월 18, 19일에 1차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야대실 시문제와 같이 세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단 夕講 대신

29)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8日(乙未) 卷55. 冊16. 442.

30)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13日(庚子) 卷55. 冊16. 444.

31)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17日(甲辰) 卷55. 冊16. 446.

32)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1月 7日(壬戌) 卷55. 冊16. 466.

朝講과 晝講에 독서량을 약간씩 증가시키자는 것이었다. 중종은 조강과 석강, 주강과 석강 형식으로 날마다 할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으나³³⁾ 다음 날 사부들에 의해 석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강원이 師傅의 뜻으로 回啓하기를, 世子께서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이 매우 독실하기 때문에 夕講까지 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저 학문은 많이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呂本中의 말이 ‘학업은 모름지기 엄격하게 과정을 세워 날마다 일반 經書와 일반 字書를 읽되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정밀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또 날마다 40~50 번씩을 읽어 모름지기 외게 하여 글자 하나도 방심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格言입니다. 학업을 이처럼 해간다면, 비록 朝講과 晝講만 하더라도 남는 힘이 없을 것이니, 석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³⁴⁾

석강실시 여부가 결정된 후 세자는 감기로 인해 21년 2월 20일까지 독서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자는 중종 21년 조강에서 『孟子』, 석강에서 『十九史略』을 계속해서 읽었으나 신병상의 이유로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종 22년(1527) 부터는 班列에 나가면서 독서와 말타기 연습을 병행하였다. 그 해 3월 1일 세자의 생일날 누군가가 죽은 쥐를 가져다 四肢를 찢어 불에다 지진 다음, 이를 세자의 침실 창문 밖에다 매달아 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실은 3월 22일에야 중종에게 보고했다. 사건 조사 결과 4월 14일 모두가 敬嬪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세자의 독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7월 들어 주강에 실시한 『十九史略』을 완독하였다. 역사서를 처음 완독한 세자에게 또 다른 역사서인 『通鑑』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간원 정응린이 『通鑑』보다

33) 『朝鮮王朝實錄』, 中宗 21年 1月 18日(辛丑) 卷56. 冊16. 493.

34) 『朝鮮王朝實錄』, 中宗 21年 1月 19日(壬寅) 卷56. 冊16. 493. “侍講院以師傅意, 回啓曰: 世子好學之心甚篤, 故至欲爲夕講, 此甚美事. 然大抵, 學問, 不在多, 務要精熟. 呂本中曰: ‘學業, 須是嚴立課程, 每日讀一般經書; 一般子書, 不須多, 只要令精熟. 又每日通讀四五十遍, 須令成誦, 不可一字放過.’ 此眞格言也. 學業能如是, 則雖只講朝、晝, 亦無餘力, 不必爲夕講也.” 傳曰: “知道.”

는 다른 책을 선정하여 읽히도록 하자는 반대의견이 나오자 중종은 세자의 학문이 점점 상승되어 가고 있으므로 侍講院과 師傅가 함께 의논하여 읽을 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³⁵⁾ 그러나 이미 시강원에서 결정한 터라 주장에 읽을 자료는 『通鑑節要』로 결정되었다. 조강에 읽었던 『孟子』은 중종 22년 10월 1일 완독하고 시강원에서 새로운 독서자료로 『中庸』을 선정하였다. 어느 정도 세자의 학문이 상승되자 진강하는 문관을 변경하였다. 즉, 전에는 賓客이 진강하고 서연관이 참관하였는데, 반대로 이번 부터는 서연관이 진강하고 賓客은 참청하도록 하였다.³⁶⁾

23년 들어 겨울철에도 여전히 세자는 감기로 인해 독서를 중단하였다. 그 해 2월 27일 처음으로 중종은 명정전 북쪽 행랑에서 서연을 열어 독서하도록 하였다.³⁷⁾ 윤10월 27일 부터는 아침에 출다는 이유로 조강을 주장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에 李彥迪은 세자의 서연방법과 과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세자의 나이가 적는데 『十九史略』을 완독하고 다시 『通鑑節要』을 읽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날씨가 춥다하여 조강을 주장으로 물려 행하고 이를 걸러 『尙書』를, 그 사이 이들은 『通鑑』을 진강한다면 『尙書』을 읽는 날은 적고, 역사책인 『通鑑』을 진강하는 날이 많다는 것이었다. 영사 沈貞과 지사 李沆 등은 문리를 통하기 위해서는 사학이 쉬우므로 먼저 읽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의 토론 내용을 보면,

掌令 李彥迪: (前約)이제 세자에게 이미 『十九史略』을 進講하고 또 『通鑑節要』을 이어서 주장에 진강하는데, 나이가 적을 때에 史學을 주로 하는 것은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또 요즈음 날씨가 추우므로 조강을 주장으로 물려 행하고 이를 걸러서 師傅·臺諫을 만나 『尙書』을 진강하고 그 사이 이들은 『通鑑』을 진강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尙書』을 진강하는 날은 적고 『通鑑』을 진강하는 날은 많습니다. 대저 사학은 학문이 高明하고 덕성이 굳게 정해진 뒤에 餘事로 보아야 하고 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서연을 이를 걸러 열기로 규정한 것은 신이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그 날씨를 보아서 해야 할 것이니 혹 날씨가 따뜻하다면 날마다 서연을 열더라도

35) 『朝鮮王朝實錄』, 中宗 22年 7月 14日(己丑) 卷59. 冊16. 585.

36) 『朝鮮王朝實錄』, 中宗 22年 10月 1日(乙巳) 卷59. 冊16. 601.

37) 『朝鮮王朝實錄』, 中宗 23年 2月 27日(己巳) 卷60. 冊16. 637.

괜찮은데 어찌 날을 걸러서 열기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中宗: 아뢴 말은 매우 마땅하지만 사부와 시강원도 우연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經史에는 절로 本末이 있으므로, 經學을 먼저 한 뒤에 고금의 사변을 보아야 한다.

領事 沈貞: 이언적이 아뢴 말은 옳습니다마는, 문리가 통달한 뒤에야 義理를 쉽게 알 수 있는데, 모름지기 나이가 적을 때에 먼저 사학을 진강해야 문리가 쉽게 통달하므로, 당초에 함께 의논하여 사학을 진강하였습니다. 또 經과 史에 말한 것이 같지는 않으나 그 의리는 본디 다를 것이 없으니, 문리를 통달하고 나면 의리를 쉽게 알아서 덕성이 절로 진취될 것입니다.

李彥迪: 『通鑑』은 이미 반을 넘게 진강하였으니, 오로지 사기를 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듣건대 전에 세자가 주강을 하고자 시강원에 下問하였는데 사부가 세자의 나이가 어려서 勤勞하게 될까 싶어 함께 의논하여 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제는 이미 조강을 주강으로 물렸으니 『尙書』을 진강해야 마땅하며, 또 부득이 『通鑑』을 진강해야 한다면 가끔 석강에서 진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士大夫를 만나 도의를 講論할 때가 많고 宦官·宮妾을 가까이할 때가 적으면 덕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中宗: 사기는 문리가 쉽게 통하니, 시강원도 이 때문에 사기를 먼저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경학을 주로 하고 사기를 여사로 하여 석강에서 강론하면 어떠한가? 이것은 시강원이 다시 의논해서 해야 할 것이다.”

沈貞: 이것은 함께 의논해서 해야 하겠습니까마는, 날씨가 매우 추우면 어찌해야 합니까? 또 세자가 학문을 싫어하지 않고 공부에 독실하니, 신들은 세자가 날씨가 추울 때에 혹 감기의 증세가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제 李沆의 말을 듣건대, 세자가 글을 읽는 소리에 감기 기운이 있다 합니다.”

知事 李沆: 사기를 경서에 비하여 보면 진실로 말단이 되겠으나, 옛사람이 ‘혹 그 쉽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기도 하고 그 어렵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기도 한다.’ 하였거니와, 문리가 통하는 것은 어떤 글에 달려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사기는 강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通鑑』에는 激切한 일이 많이 있어서 문리가 쉽게 통달하나 경서는 의리가 깊어서 쉽게 알 수 없으니, 사기를 먼저 읽어서 문리가 통달하고 나면 경학에도 크게 功效가 있을 것입니다. 『通鑑』은 이미 진강하므로 그대로 강독을 끝내는 것이 옳으며 더구나 『尙書』을 아울러 강독하니 또한 경학을 폐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³⁸⁾

이처럼 약간씩 입장 차이는 있었으나 어떤 책을 먼저 읽느냐 經學이나 史學이나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문신들의 입장에서는 세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문리를 통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중종 24년(1529) 11월 23일에는 세자의 사부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조강을 주장이나 석강에 넣어 강독하도록 하고, 독서량은 하루에 10여장을 읽은 뒤 토론하고, 또 다른 책을 진강하여 이제는 세자의 학문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세자가 홀로 독서한 후 따뜻한 날을 가려 주장이나 야강 때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도록 권의하였다.³⁹⁾

25년(1530)에는 서연청 보수 문제로 독서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 書筵廳 보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자 11월 17일 서연을 시작하기로 중종의 재가를 받았으나⁴⁰⁾ 공식적인 서연이 시작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듬해인 26년(1531) 7월까지도 서연청이 완공되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경회루 아래 한쪽에다 장막을 치고 서연을 열기도 하였다.⁴¹⁾

28년(1533) 1월 19일에는 세자가 發疹기운이 있어서 河宗海에게 진찰하도록 하는 등 독서를 중단하다가,⁴²⁾ 동년 2월 14일 東宮 資善堂에서 서연을 열었다.⁴³⁾ 동년 5월 17일 주장 때는 세자를 모함하는 익명서가 발견되었다. 주장은 동궁의 빈청에서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상한 익명서가 발견되었다. 당시 주장에 참여한 인물은 시강원 弼善 趙仁奎, 兼弼善 宋麟壽, 文學 蔡世英, 兼文學 蔡無擇, 司書 徐固, 設書 任虎臣, 兼說書 洪漚 등이었다. 이들이 당시 상황을 보고한 내용에,

“오늘 書筵에서 朝講을 끝낸 다음 晝講을 시작할 때 보니, 東宮의 賓廳 남쪽 把子 위에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든 물건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종이에 싸바르고 머리카락과 耳目口鼻를 분명히 새겨 木牌에 달았습니다. 목패의 양쪽 면에 모두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한 쪽에 세 줄씩 나누어 썼습니다. 거기에 쓰인 말은

38) 『朝鮮王朝實錄』, 中宗 23年 윤10月 30日(戊戌) 卷64. 冊17. 72.

39) 『朝鮮王朝實錄』, 中宗 24年 11月 23日(乙卯) 卷66. 冊17. 172.

40) 『朝鮮王朝實錄』, 中宗 25年 11月 17日(癸卯) 卷69. 冊17. 267.

41) 『朝鮮王朝實錄』, 中宗 26年 7月 8日(己未) 卷71. 冊17. 312.

42)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1月 19日(壬戌) 卷73. 冊17. 389.

43)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2月 14日(丁亥) 卷73. 冊17. 394.

모두가 凶逆스럽고 不道한 말로 참아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강 때에는 없던 물건이 주강 때에 있었으니 이는 틀림없이 동궁에 매어 달아 書筵官들에게 보이려 한 것입니다. 더욱 흥역스러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匿名書의 예처럼 종이에만 썼다면 즉시 내다 버려야 하겠지만. 이는 익명서의 경우와 달라서 사사로이 찢어버릴 수가 없기에 감히 아됩니다.”⁴⁴⁾

목패의 1면에 석줄로 ‘世子の 몸을 凌遲할 것. 父主의 몸을 絞殺할 것. 中宮을 斬할 것이라 했고, 뒷면에 쓴 글에는 ‘5월 16일 兵曹의 胥吏 韓忠輔 등 15인이 행한 일임’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세자에 대한 익명서 사건으로 인해 세자는 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독서할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얼마 있다가 28년(1533) 8월 11일에 세자는 설사병을 앓게 되어 독서를 중지하기도 하였다. 설사병 때문에 얼굴이 수척해 보이자 시강원에서는 세자가 열심히 독서한 원인으로 판단하여 건강상 서연을 정지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⁴⁵⁾

그 후 세자의 독서는 순리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중종 31년(1536) 1월 8일에는 그동안 정지된 서연을 시작하였는데 장소는 勤政殿의 東賓廳에서 실시하였다.⁴⁶⁾

동년 1월 16일에는 덕풍군 부인(장경왕후의 아우)이 죽었다하여 당분간 서연을 정지하도록 하였다.⁴⁷⁾ 당시 중종은 세자의 실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동안 정지한 서연에서의 독서토론내용을 다시 보고하도록 하여 동년 2월 27일에 보고를 받았다. 중종은 세자의 질문내용과 서연관들의 답변내용을 알고 세자교육에 참고하고 싶었던 것이다.

44)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5月 17日(己未) 卷74. 冊17. 419. “今日書筵朝講後, 書講時見之, 則東宮賓廳南隅把子上, 有一物假作人頭, 以紙塗之, 畫爲毛髮耳目口鼻, 分明刻造, 而懸之以木牌. 兩面皆有所書, 而一面則分三行書之, 其言皆兇逆不道觸犯之言, 不忍以口形容也. 朝講時所無之物, 書講時有之, 而且必懸之於東宮者, 欲使書筵官見之也. 尤爲兇逆, 不勝驚愕. 若只書於紙, 如匿名書之例, 則卽當棄之矣, 此則非如匿名書, 不可自裂破, 故敢啓.”

45)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8月 11日(辛巳) 卷75. 冊17. 459.

46) 『朝鮮王朝實錄』, 中宗 31年 1月 8日(甲子) 卷81. 冊17. 630.

47) 『朝鮮王朝實錄』, 中宗 31年 1月 16日(壬申) 卷81. 冊17. 633.

서연에서 실시한 토론내용을 검토한 중종은 金遂性的의 답변에 대해 성현의 말보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극찬하면서 앞으로 의심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내용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라고 하였다.⁴⁸⁾ 동년 11월 18일에 師傅 金謹思 등은 서연에서 읽고 있는 책이 『綱目』인데, 『綱目』은 자치통감에서 발췌한 책이므로 서로 참고하면서 볼 수 있도록 문무루에 있는 자치통감 1권을 동궁으로 가져갈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⁴⁹⁾

중종 33년(1538) 1월에는 이언적이 역사는 전대의 치란을 고찰하고 오늘의 귀감과 경계로 삼아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나뭇잎에 속하는 것인데 아침에 『綱目』을 낮에는 『論語』을 강독하도록 한 것은 학문의 선후가 맞지 않으므로 순서를 바꾸도록 건의한 바 있다.⁵⁰⁾ 이에 『論語』은 아침에 『綱目』은 낮에 읽도록 하였다.

중종은 동년 10월 3일에 세자가 독서하는데 三時(조강, 주장, 석강) 및 夜對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독서자료의 순서를 지키도록 하였다. 『大學衍義』은 經史의 글을 모두 수집한 것으로 治道를 강론하여 밝힌 것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석강이나 야대에는 이 글을 강론하도록 할 것이고, 강론할 때는 의논이 복잡하면 세자가 듣기에 절실하지 못할 것이니 고사에서 가장 적절한 것만을 인용하여 강론해야 할 것이며, 강론한 내용은 곧 바로 글로 써서 東宮에 들여보내어 평소에 늘 보게 하여 본인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조강에는 『論語』를, 주장에는 『綱目』을, 석강과 야대는 『大學衍義』을 읽도록 하였으며, 독서 후 토론 결과를 보고하고, 다시 세자에게도 주도록 하였으며,⁵¹⁾ 10월 6일에는 세자를 보양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三時 강론할 때 어려운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해득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봉우와 같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깨치도록 하며, 세자가 궁중에 거처하므로 민간의 일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詩經』〈빈풍〉 칠월의 시에 나오는 농사의 어려움과 민간의 원망과 고통이 실리

48) 『朝鮮王朝實錄』, 中宗 31年 2月 27日(壬子) 卷81. 冊17. 638.

49) 『朝鮮王朝實錄』, 中宗 31年 11月 18日(庚午) 卷82. 冊17. 692.

50) 『朝鮮王朝實錄』, 中宗 33年 1月 21日(丙申) 卷86. 冊18. 159.

51) 『朝鮮王朝實錄』, 中宗 33年 10月 3日(癸卯) 卷88. 冊18. 218.

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런 것을 모두 알려 훈계로 삼도록 하였다.⁵²⁾ 세자의 학문이 진척되자 중종은 더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세자가 학문에 부지런한 것은 師(君殷輔), 傅(洪彥弼), 賓客(成世昌), 李龜齡, 梁淵, 金希說) 이 모두 도리에 맞게 輔養한 소치이니 참으로 가당한 일이다. 그러나 讀書를 많이 했더라도 유념하여 수시로 복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근래 날씨가 매우 무더워 書筵을 정지하고 있지만, 한가히 있을 때 먼저 배운 책을 익히 읽어 3~5일에 한 번 정도 僚屬들을 집견하여 강론하도록 사·부·빈객에게 이르고 세자에게도 이르라.”고 정원에 당부하였다.⁵³⁾

동년 10월 21일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언적의 상소를 읽고 감명받아 1장 10조 목들이 다 격언이므로 해서체로 두 권을 만들어 한권은 본인에게 한권은 세자에게 주도록 하였으며, 세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 糾正하고 外戚들이 드나들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오로지 經學에만 힘쓰게 하고 雜書를 읽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⁵⁴⁾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언적을 일없는 관직으로 바꿔 임명하고 左右賓客을 겸임하게 해서 동궁의 일을 전담하게 하였다. 23일에는 서연에서 성세창의 강론이 효도와 우애의 도가 간절했다. 이는 세자가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니 師傅와 賓客·僚屬 등은 토론할 때 자주 효도와 우애의 도를 힘써 논하여 세자가 익숙해지도록 돕는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⁵⁵⁾

중종 35년(1540) 5월 29일에는 서연의 敎戒單子를 정원에 내리면서 세자를 권면하고 경계해야 할 말이 절실하고 타당하니 세자가 볼 수 있도록 전해주라 하였으며, 이언적의 상소 중 東銘과 西銘을 써서 걸어놓고 보도록 지시했다.⁵⁶⁾

52) 『朝鮮王朝實錄』, 中宗 33年 10月 6日(丙午) 卷88. 冊18. 223.

53) 『朝鮮王朝實錄』, 中宗 34年 6月 27日(癸亥) 卷91. 冊18. 310.“世子勤於學問。師、尹殷輔。傅、洪彥弼。賓客、成世昌、李龜齡、梁淵、金希說。皆輔養得道。誠可嘉也。然讀書雖多。不留心時習。則何益哉? 近者日候極熱。故停書筵矣。然於燕閑中。熟讀曾受之書。或三五日。一接僚屬講論之意。言于師傅賓客。亦言于世子可也。”

54) 『朝鮮王朝實錄』, 中宗 34年 10月 21日(乙酉) 卷92. 冊18. 353.

55) 『朝鮮王朝實錄』, 中宗 34年 10月 23日(丁亥) 卷92. 冊18. 354.

56) 『朝鮮王朝實錄』, 中宗 35年 5月 29日(庚申) 卷93. 冊18. 394.

중종 36년(1541)엔 세자가 나이 들면서 서연에 충실하지 않았다. 동년 3월 22일 그러한 세자를 보고 중종은 시강원 관원들에게 세자에게 서연을 청하도록 권유했으며, 참찬관 이언적은 세자의 학문이 아무리 통달했다라도 서연에서 강론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중종과 세자의 독서자료로 『大學衍義』을 추천하였다. 이에 중종은 『大學衍義』에 經史의格言이 모두 들어 있으니 이 책을 읽으면 얻는 것이 틀림없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⁵⁷⁾ 다음 날 『大學衍義』과 眞德秀의 『心經』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강독여부를 시강원과 상의하도록 하였다.

중종 37년(1542) 1월 10일에는 세자에게 『周易』을 강독할 인물로 예조판서 金安國, 형조참판 신광한, 이언적을 임명하였으나 이들은 합당하지 못함을 아뢰었다. 이유는 법전에 없는 겸이사와 겸빈객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⁵⁸⁾ 김안국이 『周易』을 진강하기로 결정하자 동년 2월 12일 尹殷輔와 洪彦弼이 김안국에 대한 예우문제를 거론하였다. 세자가 김안국에 대한 대우는 이사로 있을 때는 이사에 대한 예우를 했지만 이제는 겸빈객이므로 입참할 때마다 세자가 섬돌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회강 때 같으면 사부와 빈객이 한꺼번에 들어오므로 세자는 사부를 위하여 섬돌 아래로 내려가도 무방한데, 김안국은 빈객 자격으로 들어오므로 서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회강 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중종은 세자가 섬돌 중간에서 예우를 하는데 어찌 해가 되겠는가 하고 그 건의를 묵살하였다.⁵⁹⁾ 그러나 며칠 후 김안국이 빈객으로 이사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회강 때만 참여하도록 중종과 합의하였다.⁶⁰⁾

동년 5월 1일에 중종은 근래에 간행한 책을 반사한 것은 많으나 세자에게는 주지 않으니 잡서를 읽어서는 안되기 때문인가 하고 근래 간행한 책 중에 불만한 시집이 있으면 전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정원에서 시집은 임금의 학문에 관계가

57) 『朝鮮王朝實錄』, 中宗 36年 3月 22日(戊申) 卷94. 冊18. 451.

58)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1月 10日(辛卯) 卷97. 冊18. 541-542.

59)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2月 12日(癸亥) 卷97. 冊18. 555.

60)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2月 18日(己巳) 卷97. 冊18. 556.

없고, 『魏鄭公諫錄』이 치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四書와 五經을 읽은 사이에 여가가 있으면 입도록 하는 것이 임금의 덕에 보탬이 있다 하였다.⁶¹⁾ 그리고 며칠 후 인 동년 5월 7일에 김안국이 간행해야 할 책을 건의하였다. 그가 건의한 책은 陳喆의 『春秋集解』, 『大明律讀法』, 東萊先生 呂祖謙의 『呂氏讀書記』, 『古文關鍵』, 명나라 朱隱老의 『皇極經世書說』, 송나라의 巨儒 陳傅良의 『止齋集』, 송조 陸九淵의 『象山集』, 명나라의 謝先生鐸과 黃先生世顯의 『赤城論諫錄』, 당나라 사람이 편집한 『古文苑』, 西漢의 焦贛이 지은 『焦氏易林』, 『山海關志』, 北齊의 顏之推가 지은 『顏氏家訓』 등으로 홍문관에서 교정하여 교서관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⁶²⁾ 그러나 이 책들을 세자가 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종은 가능하면 간행된 책들을 세자에게도 주도록 하여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했다.

동년 11월 11일에는 시강원 보덕 鄭源이 세자에 대한 서연의 의미와 학문에 힘쓸 것에 대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의 일부를 보면,

“(전략)書筵이란 것은 바로 저하께서 날마다 賓僚들과 더불어 도를 강론하고 덕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상하가 서로 강론하여 천리·인욕의 기미를 분변하며, 체험하고 확충하는 실제의 공부를 하여 義理가 투철하고 德業이 날로 진취되게 해야 하니, 이는 바로 요·순이 서로 전하던 精一執中의 법입니다. 생각건대 강론할 즈음에 저하께서는 너무 침묵하여 밝게 분변하는 공부를 볼 수가 없으니, 이것은 아마 저하께서 天稟이 순수하므로 학문 과정에서 밝게 분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성의로 마음을 감격시킬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 강론하는 것이 感發시킴이 없는 것입니까? 빈료들과 서로 誠敬으로써 미덥게 된다면 상하의 情意가 저절로 통하게 되고, 講磨하는 즈음에 단지 文義만을 해석할 뿐이 아니라면 思辨力이 계속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외람되어 書筵을 더럽히고 있는 지 이미 天道가 조금 변할 정도의 오랜 시일을 경과하였으나 저하의 학문이 한 가지도 진취됨을 보지 못하였으니 帝王의 窮理·進德하는 학문이 과연 이와 같습니까? 대체로 성현의 말씀은 의리가 무궁한 것이니, 모름지기 의심나지 않는 대문에서 의심을 가져야 하고, 의심을 가지면 반드시 밝게 분변한 연후에야 날로 진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도의를 강론하는 자리에서 신분이 높다고 하여 즐겨 마음을 터놓고 下問함으로써 사변의 공부들

61)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5月 1日(辛巳) 卷98. 冊18. 574.

62)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5月 7日(丁亥) 卷98. 冊18. 575.

다 하지 않으신다면 저하의 학업이 진취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聖德에 있어서도 별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강론은 시간이 있고 章句는 한정이 있으니 진실로 사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성현의 은미한 뜻을 쉽게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이 비록 제왕의 덕이기는 하나 그것이 학문의 과정에 있어서는 큰 결점이 아니겠습니까? (후략)⁶³⁾

이는 세자가 평소에 글을 읽어도 질문이 없음을 지적한 내용이다. 강론할 시간에 침묵하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사고력과 변별력을 높이도록 충고한 것이다.

중종 38년(1543) 1월 4일에는 세자의 스승이었던 判中樞府事 김안국이 세상을 떠났다. 세자의 이사이자 겸빈객으로 주역을 가르친 인물이다. 그 가 죽자 2일간이나 조회를 하지 않았다. 사·부와 이사가 죽었을 때 그들을 존중하는 뜻으로 세자가 친제하는 것이 『五禮儀註』에 실려 있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시강원 관원만 보내 조문하였다.⁶⁴⁾ 김안국이 죽은 후 3일 만인 1월 7일에 동궁에 화재가 나서 독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세자가 근신한다는 말을 들은 世子師 尹殷輔는 날마다 학문에 정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언적은 이러한 사건들이 10년 전 灼鼠의 변으로 사사된 복성군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것이 아닌가도 조심스럽게 거론하기도 하였다(장경왕후 윤씨가 세자를 낳고 죽자 경빈 박씨가 복성군을 세자로 책봉시키기 위해 꾸민 것으로 오인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후에 진범이 김희로로 밝혀졌다).

39년(1544) 1월 15일에는 시강원 문학 李畬가 세상을 떠났다. 이여의 字는 有秋이고 本貫은 韓山이며 李穡의 후손이다. 문학으로 재직하면서 병이 든 몸이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자를 위해 진강하였으며, 김안국과 같이 역학에 정통한 인물로 세자의 독서에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⁶⁵⁾ 이들의 가르침으로 세자의 학문은 날로 발전되었으며, 그 결과 중종 39년(1544) 8월 25일에는 『綱目』을 완독하고 새로운 자료로 『송감』을 선정하였다.⁶⁶⁾ 자료선정은 세자 나이가

63)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11月 12日(戊午) 卷99. 冊18. 632.

64) 『朝鮮王朝實錄』, 中宗 38年 1月 4日(己酉) 卷100. 冊18. 647.

65) 『朝鮮王朝實錄』, 中宗 39年 1月 15日(甲寅) 卷101. 冊19. 35.

30이 되었어도 읽고 싶은 책을 자발적으로 선정한 예는 없었다. 모두 시강원에서 선정하여 중종의 재가를 받는 형식이었다.

동년 10월 6일에는 『綱目』을 완독한 공로로 같이 시강한 관원들에게 15일 명정전 뜰에서 회식을 열도록 하였다. 중종은 그 날 좌의정 홍인경, 우의정 윤인경과 좌담하는 자리에서 신병에 대한 얘기를 한 후 세자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그 내용에,

“내가 일찍이 세자의 학문을 講問했더니 학문이 날로 고명해져 갔다. 이는 侍講官이 보도한 공이었다. 『通鑑綱目』은 권수가 1백 50권인데 나는 병인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년에야 비로소 다 읽을 수 있었다. 저번에 들으니 세자 또한 다 읽었다고 하는데 물은즉 갑오년부터 시작하여 갑진년에 마쳤다고 하니 그 읽은 기간이 거의 나와 같아 내가 매우 기쁘다.”라고 하였다.⁶⁷⁾

중종이 병인년(중종 1년 1506)에 읽기 시작하여 올해년(중종 10년, 1515)에 마쳤다고 했으므로 10년이 걸렸으며, 세자는 갑오년(중종 29, 1534)에 시작하여 갑진년(중종 39, 1544)에 마쳤다고 했으니 중종이 말한 것처럼 부자간에 『綱目』을 완독하기 까지 10년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15일 명정전 뜰에서 잔치를 하였는데 그 광경이 명류들은 세 줄로 앉고, 노래소리가 떠들썩했으며, 어주와 안주가 아주 풍족하였다고 한다.⁶⁸⁾

이 자리가 바로 세자가 강목을 완독한 기념, 책거리였는데, 마지막 중종과의 잔치이기도 하였다. 중종은 잔치를 마치고 한 달 후 11월 15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세자는 부왕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조선 12대 왕에 오르게 되었다.

왕위에 오른 인종은 중종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가다듬고 인종 1년(1545) 3월 27일부터 경연을 열게 되었다. 장소는 서연청으로 정하였으나 부친의 애도문

66) 『朝鮮王朝實錄』, 中宗 39年 8月 25日(辛卯) 卷104. 冊19. 129.

67) 『朝鮮王朝實錄』, 中宗 39年 10月 6日(辛未) 卷105. 冊19. 147. “予嘗講問世子學問, 日漸高明, 此乃侍講之官, 能輔之力也. <通鑑綱目> 卷數一百五十, 予自丙寅年至乙亥, 始畢讀焉. 頃聞世子亦畢云, 問之則始于甲午, 畢於甲辰, 其讀之久近, 幾似於予, 予極喜焉.”

68) 『朝鮮王朝實錄』, 中宗 39年 10月 15日(庚辰) 卷105. 冊19. 149.

제로 처마 밑에서 독서하였다.⁶⁹⁾ 그가 읽은 책은 세자시절에 선정 받은 『宋鑑』을 주강에서 계속해서 읽었으며, 조강에서는 『尙書』을 읽었다. 경연에서 같이 했던 경연관은 侍讀官 金儲, 李樞, 鄭希登, 侍講官 鄭源, 韓澍, 領事 尹仁鏡, 洪彥弼, 成世昌, 特進官 尹漑, 李浚慶, 林百齡, 沈連源, 知事 權櫟, 鄭順朋, 參贊官 羅淑, 宋麒壽, 宋世珩, 執義 朴光佑, 檢討官 朴承任, 記事官 李燾, 安齡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많은 날을 보내지 못하고 왕좌에 오른 지 8개월 15일 만인 1545년 7월 1일 31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

결과적으로 인종이 세자시절 25년 동안의 독서일정에서 읽은 책은 <表 3>과 같이 11종(論語는 再讀書이므로 제외)에 해당한다.

<表 3> 世子の 讀書資料

圖書名	讀書時期 및 結果	圖書名	讀書時期 및 結果
小學	6世 完讀	中庸	13世 -14세
大學	8世 完讀	論語	24세 부터
論語	11世 完讀	大學衍義	24세 부터
十九史略	11-13世 完讀	周易	28세 부터
孟子	11-13세 完讀	綱目	21-30세 完讀
通鑑節要	13세부터	宋鑑	30세 讀書始作

<表 3>에서 보듯이 『小學』은 3세부터 시작하여 6세에 완독한 책이며, 『大學』은 6세에 후반부터 선정되어 2년에 걸쳐 8세에 완독하였다. 『論語』은 『大學』을 읽은 후 선정되어 11세에 완독했으며, 『十九史略』과 『孟子』은 11세부터 13세 까지 읽었다. 『通鑑節要』(50권 15책)는 13세부터 선정되어 14세에 절반 이상을 읽었다고 했는데 완독했다는 근거와 그 이후 20세까지 읽은 책이 어떤 책인지 기록이 없다. 21세 부터는 『綱目』을 시작하여 30세 까지 10여년 동안 읽었으며, 그 사이에 『論語』, 『大學衍義』, 『周易』 등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69) 『朝鮮王朝實錄』, 仁中 1年 3月 27日(己丑) 卷1. 冊19. 216.

4. 結 言

이상으로 인종이 세자시절에 서연에서 읽었던 독서일정을 조사하여 그의 독서력을 밝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시절에는 문자를 익히기 위해서 「千字文」, 「類合」, 「小學」을 읽었다. 「小學」의 경우는 일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히었다.

2. 세자로 책봉되면서 시강원이 개설되고 기존의 관원에 중종 39년부터는 보덕 이하 1명씩 증원하여 좌우보덕, 좌우필선, 좌우문학을 두었다. 세자의 독서교육은 주로 보덕, 필선 등이 담당하였으며, 사부는 권강과 회강 때면 만날 수 있었으며, 중종 39년 까지 독서에 참여한 시강원 관원은 총 80명 이상이었다.

3. 서연장소는 서연청에서 실시하다가 서연청 수리문제로 수시로 바꾸어가며 시행하였다. 중종 23년에는 명정전 북쪽 행랑, 중종 26년에는 경회루 아래 한쪽에 다 장막을 치고, 28년에는 東宮 資善堂과 동궁의 빈청에서, 중종 31년에는 勤政殿의 東賓廳 등이었다. 왕위에 올라서는 서연청 처마 밑에서 하기도 하였다.

4. 독서저해요인으로는 중종 16년(1521) 11월 초부터 감기증세로 창덕궁으로 피접, 동년 11월 17일에는 가슴 아픈 증세로 齊安大君 집으로 피접, 이듬해 1월에는 다시 창경궁으로 옮김. 동년 2월 12일 다시 감기증세로 서연 정지 또 사부와 빈객들이 호종 때문에 정지, 일본사신접대라 해서 정지, 동년 6월 날씨가 덥고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지, 중종 18년에는 자전의 병환문제로 정지, 시강원 협소문제, 질병발생, 세자빈 간택, 추위관계 등으로 정지, 중종 19년에는 세자빈 결정, 혼례, 세자빈 아버지 상 등으로 독서하는 일정이 많지 않았으며, 그 후 21년 2월 감기, 중종 22년 작서의 변, 23년 겨울 감기로 중단, 추위로 중단, 중종 24년 겨울 추위로 중단, 25년 서연청 보수문제로 중단, 28년 1월 발진으로 중단, 동년 5월 세자를 포함하는 익명서 발견으로 중단, 28년(1533) 8월 설사병으로 중단, 31년 1월 16일에는 덕풍군 부인(장경왕후의 아우)이 죽었다하여 정지하였다.

5. 세자시절 25년 동안 읽었던 책은 「小學」(6세에 완독), 「大學」(8세에 완독), 「論語」(11세 완독), 「十九史略」(11세-13세 완독), 「孟子」(11세-13 완독), 「通鑑

節要』(13세-), 『中庸』(13세-), 『論語』(24세 조강), 『大學衍義』(24세 석강과 야대), 『周易』(28세), 『綱目』(21-30세 주장 완독) 등이었으며, 그 후 『宋鑑』(30세)을 선정하여 읽은 것이 마지막 세자시절 독서였다. 왕위에 올라 주장에서 『宋鑑』을 계속해서 읽었으며, 조강에서는 『尙書』를 읽다가 완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인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한 동안 이집 저집 옮겨 다니며 비운의 생활을 계속하였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신체적으로는 허약하여 자주 감기를 앓게 되었으며, 외적으로는 자꾸 세자를 모함하는 작서의 변, 익명서, 동궁의 화재 등으로 충격적인 일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그가 왕좌에 오른 것은 평소 열심히 독서하여 인성을 닦고, 인간관계 및 정치력을 키운 보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原典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2. 論文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金重權. “中宗朝의 賜暇讀書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18집(1999. 12).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41집 (2008. 12).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